

소식

대한양계협회

육계업 소득표준을 20% 인하

양계업을 채란계와 육계업으로 구분

— 본회 건의 받아들여져 —

본회가 지난해 말 국세청에 건의한 양계업에 대한 86 소득표준을 인하에 대해 국세청은 3월27일 발표를 통해 양계업을 채란계업과 육계업으로 구분하고, 육계업에 대해 20% 낮춘 7.2% (현행 9%)로 하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당초 전반적인 인하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전체 1천5백12개 업종중 육계사육 등 10개 업종을 내리고 2개업을 인상시켰다.

그러나 채란계의 경우는 작년수준을(9%) 그대로 적용하고, 육우사육은 무세로 지난해와 같게 결정했다.

86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중 하게되는데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에게는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 표준율을 적용하게 된다.

본회 정태원회장의 취임초 세율인하 공약에 따라 지난해 부업규모의 상향조정(1만수 이하)에 이어 이번에 소득표준을 인하는 양계업계에 큰 업적으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본회는 작년말 양계업은 영세해 기장능력이 없으며 유통구조 불합리로 대부분 소득표준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86년도에 양계산물 가격이 낮아 양계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양계업을 채란계와 육계로 구분해 줄 것 ▲세율을 인하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미등록종계장, 무허가부화장 색출

-등록·허가업체, 생산농가 보호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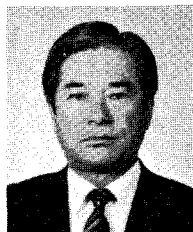
본회는 병아리 유통질서 확립과 우량초생추 보급을

위해 무허가부화장 및 미등록종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법 제32조에 의해 종축업은 등록, 부화업은 허가를 받게되어 있으나 최근 법을 이행치 않고 업을 영위해 선량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있다는 총회건의에 따라 각 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해당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본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각 지역별로 보고가 있는경우 해당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미등록·무허가 업체 현황을 수시로(분기별 1회 이상) 보고해 줄 것을 통보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료협회에서 본회 홍보비 3천만원 지원



(박찬궁 회장)

한국사료협회(회장 박찬궁)는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금년에도 본회 주력사업인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계산물 소비홍보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기관이 되었다.

3월중 홍보비 3천5백여만원 거출

- 금년목표 1억5천만원 -



▲정 태 원



▲차 상 진



▲한 순



▲장 민 기



▲최 병 현



▲이 계 욱



▲김 길 원



▲최 준 구

87년도 양계산물 소비홍보협찬금이 3월말 한달간 3천5백38만원 거출되었다.

전 양계인의 호응과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협찬금은 계속 접수되고 있다. 금년도 목표는 1억5천

만원이며 양계인들이 50%에 달하는 7천5백만원을 모을 예정이다.

5십만원 이상 협찬자는 다음과 같다.

- 정태원(본회회장, 흥성광주농장) : 5백만원
- 차상진(부회장, 봉명부화장) : 3백만원
- 한 순(부회장, 홍일농장) : 3백만원
- 장민기(부회장, 버들농원) : 5십만원
- 최병현(본회이사, 한일농원) : 1천만원
- 이계욱(본회이사, 천호부화장) : 1천만원
- 김길원(본회자문위원, 한국바이엘화학) : 2백만원
- 광주산란계분회(회장 최준구) : 1백만원

주간 양계속보 발간

- 신속한 양계관련 정보수록 -

본회는 4월 3일(금) 양계속보 창간호를 발간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의 신속한 정보를 양계인들에게 보다 빨리 전달함으로써 소득증대를 유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양계산업의 발전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창간된 본지는 주간으로 발행된다.

내용은 그동안 연서를 통해 전달하던 계란, 육계가격, 초생추시세, 노계시세, 사료생산실적, 전망 등이 모두 수록되고 양계관련 소식을 편집해 2페이지 칼라로 인쇄(16절)되어 있다.

전국 구독희망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기존의 본회발간 연서구독자는 구독기간 동안 무료로 배포되며 신규로 구독을 희망하는 분이나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회 사무국(전화 752-3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 회원·단체구독 : 년간 1만원
- 비회원 : 년간 1만5천원

'87소비홍보사업 협의회 개최

- 1987. 3. 18(수) -

본회는 87년도 소비홍보사업 효율화를 위해 소비홍보사업추진 협의회를 87. 3. 18 개최했다.

대우빌딩 지하 만다라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86실적보고 및 '87홍보계획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87년 계획대로 실행키로 협의했다. 협의회 후에는 만찬회가 있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정태원(본회 회장)
- 오봉국(홍보협의회장)
- 오세정(건국대 축산대)
- 김세현(한국사료협회)
- 이계조(천호그룹)

- 차두홍(한일그룹)
- 최죽송(한국동물약품 협동조합)
- 김길원(한국 바이엘화학(주))
- 강희구(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
- 구본영(전국 계우회 연합회)
- 조세영(미국 대두협회)
- 차상진(봉명 부화장)
- 장민기(버들농원)
- 김 현(발안농장)
- 이학복(성일농장)
- 윤봉중(축산시보)
- 엄익채(농수축산신보)
- 설동섭(가축위생연구소)

전국육계경영자 세미나 개최

— 천안육계조합 주최, 본회후원 —



(김영환 소장)



(김봉림 사장)

전국 육계경영자 세미나가 지난 3월27일 육계생산자, 관련업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후원으로 열렸다.

천안육계조합(대표 김봉림)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단위의 생산자조합 체제구축의 태동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육계산업 발전에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산자들의 주도로 처음 열리는 행사였지만 참석자들의 열의는 대단하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김영환(한국양계 연구소)소장의 「브로일러의 사육」에 대한 강의는 진지한 수강 태도를 보여 육계경영자들의 질적 수준향상이 높아감을 인식시켜 주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본회 육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계란 유통비용 30%에 달해

— 본회직원 소비자 시세조사 —

본회 직원들은 지난 3월20일 서울일원 유통센터, 시장, 슈퍼 등에서 닭고기와 계란의 유통상황 및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계란 유통비용이 30%에(마진포함)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현장을 매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격, 유통상태 등을 조사하여 유통개선 및 소비촉진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본회는 3월중 전직원이 가락동도매시장, 농협슈퍼, 시내정육점, 백화점, 시장 등 14곳을 방문 계란과 닭고기의 실태를 파악했다.

계란의 경우 특란 개당58원(산지가 45원), 대란 50원(산지가 38원)으로 각각 유통비용이 29%, 32%에 달했다.

한편, 닭고기는 kg당 도계 1,636원(도계장출하가 1,400원)으로 유통비용이 17%에 달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가전제품 공장도 — 소비자 유통비용 15~20%, 채소 등 농산물 산지 — 소비자 유통비용이(한양유통) 12~17%에(식품 12~15%, 비식품 15~20%)달하는 것으로 보아 계란의 유통비용이 높게 나타나 유통단계의 축소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서울시내 유명슈퍼에서도 갈색란과 백색란의 가격차가 개당 2원~5원씩 나타나고 있는 바 올바른 소비자 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본회는 매일 정기적으로 소비현황 및 가격을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斗>



▲ 1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광경

동조합은 현재 본회 천안분회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천안분회로 발전할 예정이다.

본회 김포분회 현판식 가져

— 3. 18 정식출범 —



(김기환 분회장)

본회 김포분회(분회장 김기환)가 지난 3월18일 김포분회 회의실에서 김기환회장, 임덕성 본회사무국장, 심학섭 김포축협조합장을 비롯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회 현판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그동안 김포지역 육계생산자들의 친목단체로 활동해 오던 김포육계협회는 금번 현판식을 갖고 법인체로서의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기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으나 회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고 밝히며, 이어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아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회원여러분이 더욱 협조,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양계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김포분회는 30여명의 회원이 약 6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공동출하 등으로 결속력을 다지면서 회원간 상호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알찬 조직으로 일러졌다.

여학교 양계산물 조리실습 개최

—경방여자실업고등학교 전학년대상—

본회는 1987. 3. 16~ 3. 20까지 경방여실고에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조리실습을 개최했다.



이번 조리실습은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15분간 강의한 후, 닭살샌드위치, 닭볶음, 스크램블에그 등을 강습하고 학생들도 직접 닭볶음을 조리실습했다.

전학년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리실습은 '87년 상반기 9개교 조리실습 중 첫번째 행사로 좋은 반응을 나타냈다.

채란분과위원장에 심준식씨

— 3월 채란분과위원회에서 —



(심준식 위원장)

3월16일(월) 개최된 본회 채란분과위원회는 심준식 천호계우회 회장을 채란분과위원장에 선출하고 채란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심준식 신임 위원장은 박력있는 업무 추진으로 그간 난가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2월 본회총회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채란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양계업자들이 계란상인에 장기를 떼어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결의하고 채란분과 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위원을 대폭 보강하기로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정기 월례모임인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3월27일 천안 육계조합 주최 전국 육계경영자 세미나 개최 후 동 장소에서 열렸다.

종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상호간에 신속한 정보 교환으로 생산을 스스로 조절하여 가격 폭락을 방지하여야 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명제하에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본회 황인옥전무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추진사업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소비홍보사업에 적극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4~5월 육계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비 영양사 대상 조리실습

— 서울보건전문대 식품영양학과 —

1987. 3. 23~3. 26까지 서울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1학년 200여명을 대상으로 양계산물 조리실습을 개최했다.

양계산물 우수성 및 특성에 대한 강의를 겸한 이번 실습은 6 종류의 요리를 조리했다.

닭불고기, 닭찜, 닭모이집 바베큐, 중국식 닭볶음, 닭날개조림, 닭고기야채튀김 등을 조리한 후 시식회를 가졌다.

장차 영양사들로 양성될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여러종류의 조리실습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맛도 좋다고 한마디씩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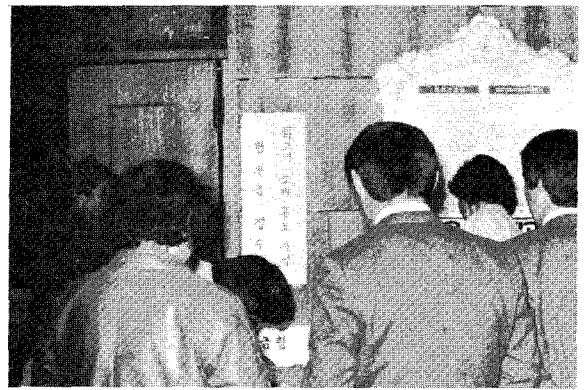
본회는 작년도부터 실시한 여고조리실습 지원이 성과가 높음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닭고기 및 계란요리 강습과 조리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양계인모임에서 홍보비거출

지난 3월 27일 천안에서 천안육계조합(대표:김풍림)

이 주최하고 본회가 후원한 전국육계경영자세미나 참석자들은 세미나 개최후 양계산물 소비홍보협찬금 33만원을 모금했다.

참석자들은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양계인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로만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전국의 양계인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회의에서 홍보비 모금에 동참하고 소비홍보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계인 홍보비 지원광경

이날 홍보비 협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환·조정래·양희진·백석기·장영준·박찬용·유근하·최기철·김동훈·김선기·정필영·이영진·김기찬·김동화·이종길·배충식·주재혁·신응균·SF 과학사료천안출장소·강남축산기구·천안육계조합(접수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요리강습회

— 1987. 3. 27(금) 파출부대상 —

본회는 1987. 3. 27(금) 오후 4시에 닭고기·계란요리강습회를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강습회는 새로나백화점빌딩 6층 강당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산하 파출부 1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를 중심으로 7종류를 강습했다.

강습회에 앞서 본회 김미옥씨는 양계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강의를 한 후 닭불고기, 닭살야채조림, 닭양

넙튀김, 닭생강장구이, 달걀야채찜, 고로케, 달걀잡채 등을 강습(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조리강사)하고 시식회를 가졌다.



▲주부클럽연합회 파출부대상 닭요리강습회

본회 인사



(이보균씨)

본회는 지도조사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양계속보 발간을 위해 지난 3월16일 공개채용을 통해 이보균

(예산농업전문대학 낙농과졸) 씨를 신규 채용했다.

한편 사무국의 강재명씨와 편집국의 정홍섭씨를 각각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했다.

3월 편집위원회 개최

본지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박사)가 3월17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 3월 편집위원회

계절의 변화로 인한 양계질병에 관한 논의가 주로 다루어졌고, 3월호 발간검토와 함께 4월호 편집계획(안)을 확정하였다.

하나씩만 먹어도 4천만의 건강보장
계란·닭이 최고로다 가정건강 나라튼튼
값싸서 좋은 계란 영양많아 더욱 좋다

1987년도 양계산물 소비홍보 협찬금 접수현황

소 속	성 명	사업장명(기관명)	금액(3/31까지)	비 고
회 장	정 태 원	홍 성 광 주 농 장	5,000,000	
부 회 장	차 상 진	봉 명 부 화 장	3,000,000	
"	한 순	홍 일 농 장	3,000,000	
"	장 민 기	버 들 농 원	500,000	
이 사	최 병 현	한 일 농 원	10,000,000	
"	이 계 욱	천 호 부 화 장	10,000,000	
분 회	(분회장 성창규)	이 천 분 회	200,000	
"	(" 최준구)	광 주 산 란 계 분 회	1,000,000	
단 체	(대 표 김풍림)	천 안 욱 계 조 합	330,200	세미나 참석자 모금
"	(조합장 강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	300,000	
업 체	김 길 원	한국바이엘화학(주)	2,000,000	
개 인	임 병 목	신 세 기 부 화 장	50,000	
계			35,380,200	

※협찬금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게재합니다.